

자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중등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Education Programs of Natural History Museum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Secondary Students

김현빈(무학여자고등학교), 김찬중(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국내외 기존 자연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자연사 박물관 4곳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주제, 참여 수준, 전시와의 연관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활동 수준 분석을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국외 자연사 박물관에 비해 우리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심 활동이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교사용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연사 박물관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자연사 박물관 현장 학습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견학 활동지와 견학 후 탐구 활동지로 구성되었다. 각 활동지는 활동 장소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모둠별 활동으로 주어진 문제를 박물관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활동 주제는 지질 시대, 퇴적 구조, 화산이며 견학용, 견학 후 활동지를 각각 학생용, 교사용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활동지는 문제 중심 학습과 협동 학습 그리고 탐구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과 토론 및 상호 작용 그리고 탐구 능력 항목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반 등 과학 관련 특별 활동 반 수업, 학기 초 수행평가, 방학 중 과학 캠프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어 교실 외 과학 수업 공간으로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